



광주일보가 후원한 2010 월드컵 국제남자배구대회 한국과 브라질의 예선경기가 3~4일 영주체육관에서 펼쳐졌다. 장신군단 브라질의 파워 넘치는 플레이와 광주출신 김요한 등이 함께 한 한국팀의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1만여 관중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나경우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배구 월드컵' 열기 뜨거웠다

빛고을팬들 '장신 삼바배구' 진수에 열광

한국, 브라질에 완패...월드리그 10연패 늪

장신군단 브라질이 빛고을에서 '삼바배구'의 진수를 선보였다.

4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2010 월드컵 국제남자배구대회 A조 예선 10차전에서 세계 랭킹 1위의 브라질이 신치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을 세트스코어 3-1(25-18 25-23 23-25 25-15)로 제압했다.

평균 신장 198cm를 자랑하는 브라질은 남미의 파워를 과시하며 광주팬들에게 배구의 묘미를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은 전날 9차전 대결에서도 1-3(25-27 21-25 25-22 13-25)으로 저 월드컵 예선에서 10전 전패를 기록했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1992년 월드컵 승리 이후 브라질전 17연패를 당했다.

브라질(1위), 불가리아(6위), 네덜란드(28위)와 A조에 속한 한국은 브라질과 불가리아에 각각 4패, 네덜란드에 2패를 당하는 등 10경기에서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며 대회 참가 16개 국가 중 유일하게 승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조직력을 앞세워 분전했지만 키 2m12의 공격수 비스토 등 2m대 장신 선수들이 전면에 포진한 브라질의 높이와 파워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세트 시작과 함께 브라질의 비스토의 공세로 0-3까지 끌려간 한국은 역시 2m가 넘는 장신 단테와 루카스의 중앙 속공을

막지 못하면서 고전했다. 한국은 이날 21득점을 올린 문성민을 앞세워 17-22까지 쫓아갔지만 비스토에게 서브 에이스를 허용하는 등 18-25로 1세트를 내줬다.

2세트 한국의 추적이 펼쳐졌다.

최태웅의 서브 에이스에 힘입어 18-16으로 리드를 잡으며 팽팽한 대결이 이어졌다. 그러나 아쉬운 오심이 나왔다. 21-21에서 문성민이 때린 강타가 수비수 발을 맞고 코트에 떨어졌지만 심판이 이를 놓쳤다. 그 틈을 노려 공격에 성공한 브라질이 득점을 올리며 순식간에 25점을 만들었다.

3세트에서 한국의 조직력이 빛을 발했다.

상대의 서브 범실을 더해 점수를 쌓은 한국은 23-22에서 김학민의 강서브로 브라질을 흔들었다. 강동진의 다이렉트 킬이 성공한 뒤 문성민의 강타로 한세트를 잡아냈다.

하지만 4세트 들어 비스토의 대각강타가 연달아 코트에 꽂히면서 브라질이 승기를 잡았다. 브라질의 뒷심에 밀린 한국은 13-25로 4세트를 내주며 무릎을 꿇었다.

안방에서 2패를 당한 한국은 9~10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으로 이동해 네덜란드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임태희 노동부장관 시구

■ 월드컵배구 이모저모

○"이날 경기에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노동부장관)이 시구자로 나서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했다. (사진)특히 강 시장은 첫 번째 서브가 네트에 막혔지만 두 번째 도전 끝에 시구에 성공,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홀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전속에서도 브라질 응원에 나선 외국인들이 눈길을 끌었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

교인 광양 STC-Korea에서 해운운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마노엘라(여·26·브라질)씨가 에프라인 사르미엔토(34·콜롬비아), 위노라 웨이스턴(여·35·미국)씨와 경기장을 찾아 브라질 국기를 흔들며 응원전을 벌였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유학 온 마노엘라씨는 "고향에 있는 친구와 채팅을 하다가 브라질 선수들의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광주를 찾았다"며 "브라질 선수들이 월드컵 우승으로 월드컵 축구 탈락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줄 것이다"고 밝혔다.

○"홀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전속에서도 브라질 응원에 나선 외국인들이 눈길을 끌었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

앞으로 2골 더...

獨 클로제 월드컵 통산 최다골 도전

'전차군단' 독일의 백전노장 스트라이커 미로슬라프 클로제(32·바이에른 뮌헨)가 월드컵 사상 역대 최다골 기록(15골)에 단 2골 차로 다가섰다.

클로제는 4일(한국시간) 케이프타운 그린 포인트 경기장에서 치러진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후반에만 2골을 폭발시키며 독일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득점왕(5골)에 올랐던 클로제는 이날 연속골로 두 대회 연속 득점왕의 진기록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클로제는 월드컵에서만 개인 통산 14번째 골을 작성해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브라질 호나우두 15골) 신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클로제는 2002년 한일 대회와 2006년 독

일 대회에서 각각 5골을 터뜨렸고 이번 대회에서는 D조 조별리그 호주전(1골) 및 잉글랜드와 16강전(1골)에 이어 이날 아르헨티나전(2골)까지 4골째를 기록했다. 특히 클로제는 앞으로 1골을 더 보태며 2002년 대회부터 3회 연속 월드컵에서 5골씩 터뜨리는 놀라운 기록도 세우게 된다. /연합뉴스



득점왕 나야

무적함대 구세주 비야 5호골로 득점 선두

다비드 비야(29·바르셀로나)가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무적함대' 스페인의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비야는 4일(한국시간) 요하네스버그 엘리스파크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남미의 북방' 파라과이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8강전에서 후반 38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스페인의 4강 진출을 이끌었다.

이로써 비야는 B조 조별리그 2차전부터 4경기 연속골(5골)을 터뜨리며 스페인이 조별리그 3경기과 16강전, 8강전까지 총 5경기를 치르는 동안 뽑아낸 6골 가운데 5골을 책임지는 놀라운 득점력을 과시했다.

비야는 미로슬라프 클로제, 토마스 뮐러(이상 독일), 곤살로 이과인(아르헨티나), 로베르트 비테크(슬로바키아), 베슬라이 스네이더르(네덜란드,이상 4골) 등을 제치고 득점 선두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비테크는 슬로바키아의 16강 탈락으로 일찌감치 경쟁에서 하차했고, 뮐러가 이날 4강전에서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준결승에 나서지 못하는 데다 곤살로 이과인은 아르헨티나의 4강 진출 실패로 득점 기회가 없어져 비야는 사실상 클로제 및 스네이더르와 득점왕 자리를 놓고 3파전을 펼치게 됐다. /연합뉴스



봤지, 동점·결승골

네덜란드 스네이더르 삼바군단에 일격



베슬라이 스네이더르(26·인터밀란)가 '오렌지군단'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의 사상 첫 월드컵 우승 꿈을 부풀렸다.

스네이더르는 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트 엘리자베스 넬슨만델라 스타디움에서 끝난 2010 남아공 월드컵 브라질과 8강전에서 동점골과 결승

골을 잇달아 터트리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역대 월드컵에서 준우승만 두 차례(1974년, 1978년) 차지했던 네덜란드는 경기 최우수선수(MVP)격인 '맨 오브 더 매치'에 뽑힌 스네이더르의 활약으로 4강에 올라 사상 첫 대회 우승 희망을 이어갔다.

한편, FIFA는 홈페이지를 통해 'FIFA 테크니컬 스태프 그룹(TSG)에서 당시 골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벨루의 자책골이 아닌 스네이더르의 골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네이더르는 벨루의 자책골이 자신의 골로 인정받으면서 이번 대회에서 4골째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최나연 '홀인원'... 사흘 연속 선두

LPGA 코닝 클래식 3R

최나연(23·SK텔레콤)이 짜릿한 홀인원을 앞세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 클래식 3라운드에서 1타 차 선두를 지켰다. 최나연은 4일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리아 하일랜드 메도우스 골프장(파71·6천428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홀인원 1개와 버디 3개,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14언더파 199타가 된 최나연은 13언더파 200타로 단독 2위에 오른 재미교포 김초롱(26)을 1타 앞서 사흘 내내 단독 선두를 달

렸다. 지난해 2승을 거뒀던 최나연은 올해 6월 스테이트팜 클래식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다. 개인 통산 3승째에 도전하는 최나연은 122m(134야드) 8번 홀(파3)에서 9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홀에 그대로 들어가 홀인원을 기록했다.

박인비(22·SK텔레콤)와 캐서린 헐(호주), 크리스티 맥퍼슨(미국)이 10언더파 203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지난달 핑장 슐을 받아 대회 2개를 건너뛰느라 세계 랭킹 3위로 밀려난 신지애(22·미래에셋)는 버디 4개와 보기 3개로 1타를 줄여 6언더파 207타, 공동 1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위창수 4타 뒤진 2위... 첫승 도전

PGA AT&T 내셔널 3R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 3라운드에서 공동 2위에 올랐다. 위창수는 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의 애러니크 골프장(파70·7237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이븐파 70타를 쳤다. 카를 페테르손(스웨덴)과 함께 6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위창수는 10언더파 200타로 단독 1위에 나선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에 4타 뒤진 공동 2위가 됐다. 단독 4위

제프 오버턴(미국)과는 1타 차다.

위창수는 3라운드까지 라운드 당 평균 퍼트 수가 26.7개로 출전한 선수 가운데 가장 적은 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날 14번 홀(파3)에서 3.7m 거리의 파 퍼트, 2.7m 거리의 보기 퍼트가 모두 빗나가 2타를 잃었다. 1라운드 14번 홀부터 이날 전반 9개 홀까지 32개 홀 연속 보기 없는 깔끔한 플레이를 펼친 위창수는 후반 9홀에서 보기 2개와 더블보기 1개가 나와 아쉬움을 남겼다.

아직 PGA 투어에서 우승 경험이 없는 위창수는 올해는 15차례 대회에 나와 3월 혼다 클래식 8위가 최고 성적이다. /연합뉴스

썸썸한 월드컵

아르헨 자랑거리 메시 무득점 수모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유력 MVP 후보로 손꼽혔던 아르헨티나의 공격수 리오넬 메시(23·바르셀로나)가 무득점의 초라한 성적표만 남긴 채 씁쓸하게 돌아

갔다.

메시는 4일(한국시간) 케이프타운 그린포인트 경기장에서 치러진 독일과 대회 8강전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출전해 8.571km를 뛰면서 7차례 슈팅을 시도했지만 '전차군단' 수비수들의 효과적인 봉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끝내 득점에 실패했다.

이로써 메시는 조별리그 3경기과 16강전 및 8강전을 통틀어 5경기에서 플라임을 뛰면서 아르헨티나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았지만 번번이 슈팅 골대를 외면하면서 무득점으로 대회를 마무리, 지난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득점왕의 위신이 꺾이고 말았다.

메시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마라도나의 재림'이라는 칭호 아래 역대 세 번째 월드컵 우승 도전에 나선 아르헨티나의 희망이 었다. /연합뉴스

